"손흥민 앉아만 있어도 큰 힘"…카타르월드컵 명단 포함될 듯

안면 골절 수술 후 회복 중… "회복 상태 계속 체크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 "3차전쯤 뛸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안면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인 손흥민이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상 회복 중인 손흥민은 현재 월드컵 출전에 대한 열의가 남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축구협회에서도 수술 이후 한 달 즈음이 되는 12월 3일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전에는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손흥민은 현재 자신의 최고 커리어에 도달했는데 월드컵에 뛰기를 바랄 것"이라며 "손흥민의 회복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일 최종 명단이 발표되니 지켜보자"면서도 "손흥민이 뛰지 않더라도 벤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손흥민의 명단 포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흥민이 뛰지 않고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지만 수술을 잘 마쳤으니 3차전쯤엔 뛰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팀 토트넘과 수술 후 손흥민 몸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축구협회의 이같이 분위기를 볼 때 손흥민의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포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설사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주장 손흥민이 카타르로 가지 않을 경우 벤투호가 입는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월드컵 진출까지 거의 대부분 여정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손흥민 동행 여부는 선수단 사기를 크게 좌우하게 된다.

손흥민 없이 카타르에 도착한 선수단은 맥이 풀린 상황에서 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손흥민이 빠질 경우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팀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손흥민이 출격 대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팀은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지만 손흥민이 아예 없을 경우 상대팀은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한국 골문을 공략하게 된다.

회복이 더뎌 몸싸움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라도 킥을 전담해온 손흥민을 문전 프리킥이나 코너킥 등 결정적인 기회 때 킥만을 위해 전격적으로 투입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수술 후 회복 중인 가운데 어린 공격수들이 힘을 내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 발표를 앞둔 가운데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공격수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

손흥민 공백 속 정우영·이강인 상승세…공격진 경쟁 치열

정우영, 선발 자리 되찾고 리그서 첫 골

이강인,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 뽐내

송민규·양현준·엄원상·오현규 훈련 중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정규리그 1호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정우영은 지난 7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유로파 파크 슈타디온에서 치러진 쾰른과의 2022~2023시즌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7분 결승골을 넣어 프라이부르크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정우영은 지난달 낭트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지만 리그 득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우영의 골 소식은 벤투호에 호재다. 손흥민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올림피아코스)도 제 컨디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 선전은 벤투호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마요르카)도 활약을 이어갔다.

이강인은 지난 7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 시우타트 데 발렌시아에서 치러진 비야레알과 2022~2023시즌 라리가 13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강인은 역습 상황에서 감각적인 턴 동작 이후에 날카로운 전방 공간 침투 패스로 동료에게 골키퍼와의 일대일 기회를 만들었다. 이강인은 특유의 탈압박 개인기를 펼친 뒤 전진 패스 능력을 선보이는 등 공격적인 재능을 뽐냈다.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는 국내파 공격수들이 손흥민 공백을 메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황희찬(울버햄튼)과 권창훈(김천 상무), 나상호(FC서울)가 안정권인 가운데 송민규(전북 현대), 양현준(강원FC), 엄원상(울산 현대), 오현규(수원 삼성)가 벤투 감독 앞에서 눈도장을 찍기 위해 훈련에 매진 중이다.

벤투호는 오는 11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른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갈 최종 명단은 12일 공개된다.

심장 마비 극복한 '인간 승리' 에릭센, 카타르 간다

심장 마비를 이겨낸 '인간 승리' 크리스티안 에릭센(30·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덴마크 축구대표팀의 최종 명단에 포함돼 2022 카타르월드컵에 나선다.

7일(현지시간) 덴마크축구협회가 발표한 21명의 카타르월드컵 출전 명단에 에릭센이 포함됐다.

에릭센은 지난해 6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경기 도중 심장 마비로 쓰러져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다.

재활 후 그라운드로 복귀한 에릭센은 브렌트포드를 거쳐 올해 7월 맨유와 3년 계약을 맺고 맹활약 중이다.

또 지난 3월엔 심장 마비로 쓰러진 지 9개월 만에 덴마크 대표팀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도 덴마크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카타르월드컵은 총 26명의 최종 엔트리 제출이 가능하다.

카스페르 휼만트 덴마크 감독은 이중 21명을 먼저 선발한 뒤 월드컵 직전 나머지 5명을 추릴 계획이다.

카타르월드컵 최종 엔트리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의 김주형 누구?…KPGA 남자골프 최고 영예 제네시스 대상 경쟁

대상 수상자,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

지난해 대상 김주형, 미국 무대서 강한 인상

2022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영예인 '제네시스 대상' 주인공이 올해 최종전에서 탄생한다. 지난해 대상 수상 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맹활약 중인 김주형(20·CJ대한통운)에 이어 어떤 선수가 미국 진출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KPGA 최종전인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우승 상금 2억6216만199원)'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경기 파주 소재 서원밸리CC 밸리-서원코스(파72)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제네시스 포인트 1000점, 2위에게는 600점, 3위에게는 520점이 주어진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서요섭(26·DB손해보험)과 2위 김영수(33·PNS홀딩스)는 이번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 자력으로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할 수 있다.

3위 함정우(28·하나금융그룹)부터 8위 황중곤(30·우리금융그룹)까지 6명도 이번에 우승할 경우 상위 선수 성적에 따라 역전 가능성이 있다.

제네시스 대상은 K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상이다.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너스 상금 1억원과 제네시스 차량 1대, 투어 시드 5년이 주어진다. PGA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출전권도 받는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김주형은 올해 7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참가해 3위에 올랐다. 이후 김주형은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연소로 PGA투어 우승을 이뤄냈고 PGA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달에는 슈라이언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PGA투어 2번째 우승을 거뒀다.

2021년 _제네시스 대상_ 수상자 김주형. (사진=KPGA 제공)

이번에 배출된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가 김주형처럼 미국 무대로 진출해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산 '곰들의 모임'…이승엽 vs 김성근 이벤트 경기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실시…이승엽 신임 감독 팬들과 첫 만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3년 만에 '곰들의 모임'을 개최한다.

2022시즌을 마친 뒤 이승엽 감독이 새롭게 두산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와 이벤트 경기도 펼쳐진다.

두산은 오는 20일 잠실구장에서 '2022 곰들의 모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연례 행사이던 '곰들의 모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이승엽 감독과 정수빈, 김재환, 김재호, 허경민 등 선수단 12명은 팬 사인회에 나선다. 사인회 참가권 예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2 베어스클럽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군 선수단이 실제 탑승하는 버스 체험 행사가 오전 10시에 열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외야 그라운드 캐치볼 이벤트도 열린다.

오후 1시부터 두산과 JTBC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가 이벤트 경기를 치른다.

두산 유망주들과 KBO리그 레전드가 일전을 벌인다.

이승엽 감독은 두산 사령탑에 오르기 전까지 몬스터즈 감독을 맡았다.

이승엽 감독의 두산 감독 선임으로 공석이 된 몬스터즈 감독 자리는 김성근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성근 감독은 7일부터 녹화에 참여했다.

김성근 감독은 1984~1988년 두산의 전신인 OB 베어스 감독을 역임했다.

이승엽 감독이 일본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에서 뛸 무렵 순회 코치로 일하며 그를 돕기도 했다.

두산과 몬스터즈의 이벤트 경기 입장권 예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입장권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한다.

제주여왕 이소미, 육지서도 우승할까…KLPGA 최종전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한 제주여왕 이소미(23·SBI저축은행)가 이번에는 육지인 춘천에서 우승을 노린다.

이소미는 오는 11일부터 강원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2022시즌 최종전인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2(총상금 10억원, 우승 상금 2억원)에 출전한다.

지난 2주간 제주도에서 연달아 우승한 이소미의 3주 연속 우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남 완도 출신 이소미는 통산 5승 중 3승을 제주도에서 따냈다.

KLPGA투어 3주 연속 우승 기록은 1996시즌 박세리(45), 1997시즌 김미현(45), 2008시즌 서희경(36) 등 단 3명만 보유하고 있다. 이소미가 서희경 이후 14년2개월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이소미는 "2주 연속 우승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요즘 아이언 샷감이 특히 좋다"며 "2주 동안 제주도 그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번 대회 그린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추위에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번 대회는 추위와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미를 포함해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유해란(21·다올금융그룹)과 올 시즌 상금왕을 확정지은 박민지(24·NH투자증권) 등 77명이 출전한다.

대상포인트 부문 1위인 김수지(26·동부건설)와 2위인 유해란의 격차는 68점이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점수는 70점이다. 유해란이 우승을 차지하고 김수지가 톱10에 들지 못하면 역전도 가능하다. 최저타수상 또한 2위인 유해란이 1위인 김수지와 타수 차를 크게 벌리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6일 제주 엘리시안제주CC에서 열린 KLPGA 'S-OIL 챔피언십 2022' 마지막 경기를 마친 이소미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KLPGA 제공)